열린 공간 … 이제는 학교 건축이 변하고 있다

- 획일적 기준 폐지,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걸맞는 공간 재편성 요구 -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시대를 거치고 한국 전쟁을 겪는 동안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그러다가 1960년 4·19혁명을 거쳐 1961년의 5·16 이후 제3공화국이 등장하면서 겨우 나라가 안정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정치적·사회적으로 너무도 어지러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학교 시설에까지 배려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때문에 제3공화국 초기에는 일제 시대의 학교 시설을 약간의 보수를 통해 그대로 사용해 왔다.

획일화 시대의 학교 건축

또한, 한국 전쟁 이후 1차 베이비붐으로 학생 수가 급증함에 따라 대량의 학교 시설 건설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1962년에 처음으로 학교 시설 표준 설계도가 만들어지고 그 설계도에 의해 학교 시설이 전국적으로, 그 지역이나 대지 조건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모습으로 건설되었다. 초기의 학교 시설 표준 설계도는 1983년의 6차 개정에 이르기까지 보완·수정·개선되어 오면서 학교 건축의 획일화된 모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취지 아래 학교 시설은 더욱 그 모습을 획일화시킬 수 있었다.

표준 설계도에 의한 학교 건축의 모습은 아마도 지금의 중년층이 다녔던 초·중·고등학교를 연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지 북측에 남향의 교사가 편복도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교사 남측으로는 넓은 운동장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다. 교실은 9.0m×7.5m로 약 20평에 가까운 규모이다. 각 교실은 폭이 약 2.5m의 기다란 복도를 면하고 있다. 초등학교라 가정하고 교실 문으로 들어가 보면 전면에 칠판이 붙어 있고 칠판 앞에는 교탁이 중앙에 놓여 있다. 교탁 우측인 창문 쪽으로는 담임 교사의 책상이 놓여져 있다. 그 앞으로 대부분 2개의 책상을 붙여 일자 배치 형식으로 칠판을 향하여 일렬로 배치된다. 교실 뒷면에는 게시판과 한쪽 구석에 청소 도구 등이 놓여 있다. 이러한 20평 규모의 교실에 한때는 100명 이상의 학생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니 이제 생각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들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옛날 일이 아닌 필자도 학창 시절을 그러한 학교에서 보낸 바로 20 30년 전의 일이다.

환경·구조적 측면은 긍정할 만

하지만 표준 설계도에 의한 학교 건축이 꼭 부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열악했던 학교 시설을 당시 가난한 정부의 재정 속에서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소를 제공하였던 긍정적인 면을 부정할 수는 없다.

최근 환경 지속적 건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표준 설계도에 의한 학교 시설은 그러한 면에서 환경을 고려한 시설임을 알 수 있다. 모든 건축물은 안전과 채광, 통풍이 가장 기본 조건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교실의 폭 7.5m와 복도 폭 2.5m를 합하

면 교사의 폭은 10 m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자연 환기를 위해서는 건물의 폭이 10 m를 넘어서면 자연 통풍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옛 교실은 자연을 충분히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옛 건물들은 규모가 커지면 채광과 통풍을 위하여 중정(中庭)형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광에 대해서도 교실의 폭이 7.5 m라 함은 교실 층고를 약 3.6 m라 할 때 복도 측의 책상까지 자연 채광이 가능한 최대한의 거리라 생각할 수 있다. 건물의 안전 면에서도 4.5 m×7.5 m는 매우 경제적인 기둥 간격이며 구조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이다. 이처럼 비록 열악하기는 하였지만 이전의 표준 설계도에 의한 학교 시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법 자연 환경을 고려한 것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에 이르러서 매우 열악하였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학교도 이제 생각해보면 아련하고 아름다운 옛 추억이 담겨 있는 시설이라는 느낌은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시설은 초등학교 아동과 사춘기의 성장하는 아동들에게 교육적인 면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시설이 오랫동안 획일적인 정책 아래 전국적으로 시행돼 와 이제는 학교 시설 하면 누구나 쉽게, 그리고 공통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다.

열린 학교의 등장

표준 설계도에 의한 학교 시설 건설은 1980년대 후반에 오픈 스쿨이 국내에 적극적으로 소개되면서 사립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열린 공간을 갖는 학교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1986년 3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초등학교가 등장하는데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하는 운현초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덕성여대 강의동의 교실 벽을 없애는 등의 개조를 통하여 설립되었다. 이 학교에서는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이 스스로 학습하고 자주적이며 개성을 기르고 창조적인 아동 육성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어 서울 영훈초등학교에서도 교실과 복도 사이의 벽을 철거하고 교사 연구실을 두는 등 열린 교육을 위해 공간 구조를 개조하는 예가 등장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학교 신설 초기부터 열린 공간을 갖는 타입으로 건설된 학교는 상명초등학교이다.

현대화 시범학교와 새로운 기준

이처럼 새로운 교육 공간의 등장이 사립 초등학교로부터 시작되고 있을 즈음 교육부에서도 기존 학교 시설의 교육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1990년부터 현대화 시범학교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이 현대화 시범학교는 신도시에서 많이 건설되었으며 당시 언론 등에 의한 열린 교육의 유효성에 영향을 받아 1996년에는 열린 교육 시범학교와 같은 맥락에서 시행된다. 때문에 이후 신설되는 초등학교 건설에서는 열린 공간을 배치하는 공립학교가 전국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때에 즈음하여 1997년 문민 정부에서는 제7차 교육 과정을 제정하고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 과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학교 시설 공간 계획이 요구되었다.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1962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표준 설계도는 1990년부터 사용 의무화가 폐지되었다. 1967년에 공포되었던 「학교시설·설비 기준령」도 1994년 15차 개정을 마지막으로 1997년 폐지되고 이를 대신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안」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 안에서는 기존의 학교 모습을 획일화시켜 왔던 교실 규격인 66 m^2 등을 모두 없애고 학생 1인당 최소 기준 면적으로 정하였다.

자주적 교육이 가능한 시설 요구돼

동질의 질 높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공업화 시대에서 다양한 품종에 의한 소량 생산이 아니면 대응할 수 없게 된 정보화 시대로의 사회적 변화는 교육 시설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등장과 함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의 재편성을 의미한다.

이제 표준 설계도라는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 건축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풀어졌다. 이제부터는 획일적인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대응할 수 있으며 자주적인 교육이 가능한 학교 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화, 국제화, 여가 시간의 증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 사회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학교 교육도 종래와 같이 일정의 지식과 기능만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가 과제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로 배우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형성시키는 점이 교육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의 개별화·개성화, 자기 학습력의 육성, 컴퓨터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시설의 변화로는, 최근 초등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습 공간으로서의 오픈 스페이스(다목적 스페이스)의 설치를 들 수 있다. 중·고등 학교에서는 각 교과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교과 교실형의 등장을 기대한다.

김승제
광운대 건축학부 교수